

25년 1월 목회일정

5일(주일)	수료 및 진급식
12일(주일)	성찬조별기도회 뉴웨이브교회 공동의회
1-2월(오후)	<기도 :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송영>강설
6일(월)	노회 신년인사회(함께하는교회당)
20일(월)	두 교회 교역자 수련회
29일(수)	세속명절(설)

주간소식

환영합니다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담임목사를 만나시고, 돌아가세요

1. 성찬예식 / 매일 예배와 성찬상을 위하여 자신을 살피시다.
[본 교회 당회의 허락을 받은 입교인이 참여합니다]
2. 오후예배헌금 / 구제목적(곡성연화교회 부산장애인전도협회)
3. 성찬교구와 성찬조 / 주보7면과 예배당게시판을 참고하세요
4. 기부금영수증 / 필요한 분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5. 교역자수련회 / 20일(월) 김해개혁장로교회 교역자회와 함께
6. 가정(개인)기도회 / 밴드에 올려지는 아침묵상과 기도제목, 주보의 [설교요약지], 가정성경읽기 등을 참고하세요.

* 두 교회 중고대연합수련회

일자 : 2월 7- 8일) 장소 : 송정 호호하우스펜션
강사 : 양주동 목사, 김우곤 전도사

* 처음오신 분/

- 김성욱 현정화성도(목사-몽골선교사)
- 이광원성도(강도사-동부산교회)

한 주간도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전투적인 사명을 다 하며 승리하는 삶 되세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소속으로
1997년 1월 개혁주의교회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예배 안에서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인
① 진지한 말씀의 강단 구축(설교, 강독)
② 성례의 정확하고 성실한 거행(세례, 성찬)
③ 정당하고 올바른 권징의 시행(권고, 치리)을
애쓰며 노력하는 언약공동체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동래언약교회 집회안내

주일 예배	오전	11:00
	오후	15:00
주간 기도 회	아침기도	06:00(월-금)
	수요기도회	09:30
	금요기도회	21:00
	지역기도회	각지역결정
교회 학교	유/SFC	주 13:00
	교회알기	주 13:30
	청년회	주 14:00

이 달의 봉사자

	01월	02월
교회소식	고충석	김영민
봉 헌	김낙형	구성본
안 내	조안나	최진언

평균케 하는 원리

후원	개혁정론(고신 개혁 언론)
	파서교회(고신, 강인중)
선교	외국인근로자선교(이요한)
	김성욱선교사(특수지역-M국)
구제	곡성연화교회(최지혁)
	부산장애인전도협회(정용균)
장학	고려신학대학원(기동연원장)

교회봉사자

- 시무목사 / 최성림 양주동
- 시무장로 / 김영민 고충석
- 시무집사 / 이경준 김낙형
- 반 주 / 문경실

주후 2025.01.19.(제29-03호)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서 가는 교회(행20:32)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래언약교회

DONGNAE COVENANT *presbyterian* Church

주일오전예배

오전11시

인도 양주동 목사
설교 양주동 목사

교회소식

개회

* 예배에로의부름 ↑ 시 121: 1-2(교송)
인도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회 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로다.

* 축복의인사 ↓ 고전1:3(인도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 경배찬송 ↑ 찬송59장(3a-3b)

죄의고백

* 십계명봉독 ↓ 출20장(전계명/봉독)
* 죄의공적고백 ↑ 제 6형
* 용서의은혜의선포 ↓ 인도자
* 감사찬송 ↑ 찬송65장(1a-1b)

말씀봉사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성경봉독 ↓ 눅14:25-35
선포를위한찬송 ↑ 시편22편
설교 ↓ 설교자

제자의길

아멘송 ↑ 찬송가643장

성례시행

세례식 ↓ 필요시 시행
성찬식 ↓ 초대 신앙고백 찬송가230장(1-2) 구제헌금 분병 분잔
목회기도 ↑ 설교자

봉사사역

봉헌및봉헌찬송 ↑ 찬송19장(3-6)

폐회

* 강복선언 ↓ 설교자

*는 일어서서(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가셔도 됩니다)

47739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261-1

예배당 051) 558-4890

목사관 010-4564-4890

www.dcpchurch.com

주일오후예배	교회소식	오후 3시	인도 최성림 목사 설교 최성림 목사	주간기도회
	개회			아침기도회 월~금 6시(교회밴드) 요한복음 묵상 인도 : 최성림 목사
	* 예배예로의부름 ↑	시134:1,3(교송)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전 9:30(예배당) [나의 이름을 위한 집] 인도 : 최성림 목사
	인도자: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와 모든 종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회 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찌어다			
	* 축복의인사 ↓	벧후1:2(다함께)	금요기도회 금요일 21시(예배당)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 경배찬송 ↑	시편67편(3-4)	
	신앙고백			
	* 신앙고백 ↓	니케아신경	지역기도회 인도 : 최성림 목사 * 동부(수, 20:00) 인도 : 양주동 목사 * 김해(월, 19시)
* 감사찬송 ↑	찬송가548장(3-4)		
말씀봉사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성경봉독 ↓	행4:23-31, 시2:1-3		
교리문답교독 ↓	소교리88, 98문답	주간성경읽기	
선포를위한찬송 ↑	시편 2편		
설교 ↓	설교자		
기도, 은혜와 감사의 방편				
아멘송 ↑	찬송가643장		
자비사역				
	봉헌및봉헌찬송 ↑	찬송62장(3-4b)	
	폐회			
* 강복선언 ↓	설교자		

주일	출 31-33	마12:22-50
월	출 34-35	마13:1-23
화	출 36-38	마13:24-58
수	출 39-40	마 14
목	수 1- 3	마15:1-20
금	수 4- 6	마15:21-39
토	수 7- 9	마 16

주일설교를 기억하며(제자의 길) 1.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되기를 2.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며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기를 3. 언제나 나의 소유와 능력이 아닌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곡성연합교회(최지혁 목사:고신) 1. 말씀을 배우고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확신 가운데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되게 2. 예배와 성경공부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도록 3. 오후예배와 전도사랑방을 통해 새로 나오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자람이 있도록 부산장애인전도협회(정용균 목사) 1. 전도협회가 주님이 허락하신 장애인사역을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잘 감당하도록 2. 평소 만나는 장애인들과 복음의 귀한 교제가 이루어져 복음 안에서 그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3. 사무실이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전할 수 있는 재정과 환경되게 성도들의 일상을 위해 1. 6월 동안 맡겨진 의무를 균형있게 잘 감당함으로써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환경되게 2. 감정조절을 잘하여 어떤 순간에도 순결하고 어여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3. 성경의 교훈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곰곰이 생각해보며 더욱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	--

자녀들의 주일예배를 돕는 부모들의 역할(2- 전에 교회카페에 쓴 글) 4. 주일 예배 후에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오늘 있었던 예배와 교회생활에 관하여 즐겁게 이야기나누기를 추천합니다. (오늘 예배의 점수를 스스로 매기기, 설교토론해보기-제대로 이해했는지 살핌, 주일 중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 들어줌, 잘못된 일들은 잘 알게 고쳐줌) : 자녀들이 자라면 대화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지만 주일은 같이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주일예배와 성도들과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아이들이 예배와 교회생활을 한 번 더 생각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 자녀들의 생활을 살피고 도와주며, 기도할 기회도 될 것입니다. 5.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이고, 자녀들은 부모의 카피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부모가 예배에 참석할 때 부모의 준비와 자세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예배에서 바른 본을 가진다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됨을 배우게 됩니다. (토요일 예배준비-일찍 일어나기하고 휴식하기, 예배지각 안하기, 설교시간에 졸지 않기, 오후예배에 빠지지 않기, 성도들과 교회를 위한 이야기하기 등...) :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매일 밥을 지을 때마다 성미(誡米*)를 구분한 것처럼 토요일에는 주일예배를 준비하고, 교회 중심의 생각을 자녀들과 나누고 또 예배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참여한다면 자녀들은 그 중심을 보고 듣고 느끼며 배워갈 것입니다) * 성미(誡米)-원래 불교에서 신에게 정성을 드리기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던 것을 한국 교회가 차용하여(70년대 말까지) 여성도들이 한 달동안 매끼니 한 숟가락씩 모아서 목회자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전달했습니다.	
--	--

1. 성찬교구

I	교구장 : 고충석 장로 이경준 집사 고충석 김명순 이경준 최현미 박지영 조안나 김용대 문경실 김영규 박종순 김요림 최예지 최진언 고태은 고주은 고서은 이은수 고대벽 김유안 이광원
II	교구장 : 김영민 장로 김낙형 집사 김영민 노주혜 김낙형 강정희 김영덕 이영서 김경이 구성본 김학희 김민혁 이한나 김유니 조완식 이근영 김성윤 구하영 김성재 방준범 최하연

2. 성찬조

성찬 1조 고충석 김명순 김영덕 김용대 문경실 방준범 김유니 김요림 이영서 최예지 고태은 고주은 고서은 김유안(김이현 김이찬 김이설 방하림 양선 양현)	조장 : 고충석 부조장 : 김용대
성찬 2조 김영민 노주혜 이경준 최현미 김민혁 이한나 김경이 조완식 최하연 이은수 이광원 고대벽(이은우 김선우 김이준 김이술 / 이수정-원임)	조장 : 김영민 부조장 : 이경준
성찬 3조 김낙형 강정희 박지영 조안나 구성본 김학희 김영규 박종순 최진언 이근영 김성윤 김성재 구하영 (구하린 박재희 박재윤)	조장 : 김낙형 부조장 : 박지영

제로 나타난 것입니다. 교회는 이를 통해 주의 말씀의 성취를 본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단순한 정치적인 이유나 이권만을 위하여 악을 행한 것이 아님을 이미 시편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대적한 것은 단순히 교회가 아니라 대주재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입니다.(시2:1-3)

지금 예루살렘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하 만민이 일어나 메시아를 대적하듯이 이제는 온 땅의 권세들이 여자의 후손인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사도들은 단순히 그들의 미움을 받아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와 그가 세우신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그 분과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간구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주의 대적들인 이 시대의 정사와 권세잡은 자들로부터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이는 자신들이 좀더 편안하고 괴로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표적과 기사를 필요로 한 것'도 오직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입니다.(28-30) **교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드러져야 합니다.**

예루살렘교회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미래를 대처하는 지혜와 결단을 배우게 됩니다. 교회가 대적들의 반대와 위협이 거세어진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행하는 것은 만유의 주재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3.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감사함으로'해야 합니다.(소고리98'c) 성경은 기도를 가르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들어 주신다'(마 21:22, 약1:5,6)고 약속하고 있으며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짐으로 여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게 됩니다.(시116:1-2) 제자들은 세상의 열왕들이 메시아를 거스리지 못하며, 심판을 받는 것처럼 아무리 세속의 권세들이 교회를 대적한다 할 찌라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침내 의로우신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실 것을 굳게 확신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행하시리라 약속하신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의 약속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며 그 말씀하신 것을 따라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교회는 그 간구한 것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나라 안에서 언제나 유효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세력과 능력도 주의 나라 가운데서 주의 명령을 뒤엎어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고 드리는 기도야말로 대 주재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따라 간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심으로서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였고, 서로 돌아보며 많은 무리로 주의 복음을 통한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31-37)

주의 대적들의 꾀계는 주의 권세와 영광이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교회를 해치는데 쉬지 않을 것이지만 창조주이시며 대주재이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를 꺾을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롬8:31-39) 아멘

동래연약교회 가정기도회[2025년1월19일 주일오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 449장
성경봉독	눅 14:25-35
설 교	제자의 길	부모대독
기 도	부 모
주기도문	다 같 이

주제: “주님께서 제자가 되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나온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에게 당신의 제자가 되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무작정 예수님과 함께 간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한 가지이지만, 그 길의 특징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제자도의 첫 번째 특징: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자신의 부모, 처자, 형제와 자매까지,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는 정말로 가족들과 목숨을 미워하란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창 29:30-31, 신 21:15).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자는 늘 핑계를 댑니다. 그때에 가족은 가장 그럴싸한 변명이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과 61절에서도 아버지의 장례나 가족을 위한 작별인사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변명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이외에 다른 것들을 상대화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늘 핑계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은 “절대적”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처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요.

2. 제자도의 두 번째 특징: 주님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이 두 번째 특징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엄청난 고난과 불명예를 동반합니다. 한 차례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평생 동안 짊어져야 할 고통입니다. 원래 십자가형이란 것이 육체적 고통과 모욕과 불명예를 짊어지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이미 먼저 걸으셨습니다. 당신께서 먼저 가신 길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보좌를 버리고 낮은 비천한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할 것을 아셨음에도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님을 따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고난 받기를 꺼려합니다. 형통과 성공의 길만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에도 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물론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도 함께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복과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으로부터는 미움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곧바로 고통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는 건 아닙니다.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주님을 위한 헌신을 해야 합니다. 비록 세상으로부터 외면과 조롱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기쁘게 참여해야 합니다. 제자도는 헌신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3. 제자도의 세 번째 특징: 가장 가치있는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망대를 짓는 이야기입니다. 이 망대는 기초부터 튼튼히 지어야 할 정도이기에 간단한 구조물이 아니라 군사적인 목적으로 지어진 망대로 보입니다. 만일 이런 망대를 짓다가 돈이 없어서 완공하지 못한다면 적에게 약점을 보이게 됩니다. 차라리 안 짓느니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도 “먼저 앉아서” 신중하게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적군은 아군에 비해 두 배의 규모입니다. 무리해서 전쟁을 치를 수도 있지만, 괜히 전쟁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항복을 하는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무리하다가 나라도 잃고 목숨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비용’을 고민하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군사력’을 고민합니다. 둘 다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괜히 시작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 가치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의 소유와 능력을 의지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가장 가치있는 선택을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나의 소유와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소유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당신만을 의지하기를 요청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결국 제자도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며,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게 하며, 나의 소유와 능력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이와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건 다음 이야기에서도 나타납니다. 소금은 맛을 잃으면 되돌릴 수 없고 버려야 합니다. 짠맛은 소금을 소금되게 하는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습니다. 제자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예수님 곁에만 머무르는 ‘무리’와 다름이 없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말씀이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가 되는 길”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를 것입니다. 믿음대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동래연약교회 가정기도회[2025년 1월 19일 주일오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 35장
성경봉독	행4:23-31, 시2:1-3
설 교	기도, 은혜와 감사의 방편	부모대독
기 도	부 모
주기도문	다 같 이

주제: “교회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그 약속하신 바를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입니다.(소고리88문답) 그러나 사단도 이를 알고 계속해서 기도를 방해합니다.

1. “누구에게 기도하였는가?”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소고리 98`b)

1) 예루살렘교회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24) 예루살렘교회는 하나님을 대주재시요, 창조주시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며 그의 종으로서 위치를 지킬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만물의 대 주재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당신의 교회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 만물이 다 그분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이며, 천하의 권세잡은 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권세와 능력의 시도라도 만유의 대주재이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2) 예루살렘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30)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기도의 통로이십니다.

교회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가 되시며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넉넉할 것이며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보다 더 강력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30)

교회는 천지의 대주재이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권세로 삼습니다. 이것이 성령하나님의 권능이며 이것이 만유의 아버지께서 부여하신 권세입니다.(엡6:12)

2. “무엇을 기도하였는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합당한 뜻에 근거한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여야 합니다.(소고리98`a) 당시의 교회의 대적들의 모략은 이미 시편 2편에 예언된 대로이며 이러한 일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악의 세력이 실